

부산

사건·사고

철로 옆 60대 남자 변사

26일 오전 7시 30분께 부산 북구 화명동 대천천 인근 경부선 철로 옆 자갈밭에 6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온 몸에 골절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이 곳을 지나던 화물열차 기관사 김모(44)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단 등산복 차림의 숨진 남자가 25일 밤 시간대 철길을 횡단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희경기자**

중앙선 침범 승용차와 충돌

26일 오전 0시35분께 부산 사하구 대동동 동원역 옆 평도 3차로에서 무지개광단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으로 달리던 김모(37)씨가 모는 그레이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마주오던 이모(41·여)씨가 모는 아반떼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씨의 의식불명에 빠졌고 동승했던 이씨의 여동생 부부와 승합차 운전자 김씨 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가 1차로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백상기자**

거주집 작업 인부 추락사

25일 오전 11시10분께 부산 강서구 지사동 지사학단지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조모(46)씨가 8m 높이에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김백상기자**

구청사가 뭉개 아동놀이터

동구청, 청사 신축부지에 포함 폐쇄

수정1·2동 300여명 유일한 공간 상실

일선 구청이 새 청사를 건립하면서 청사 신축공사장 인근 놀이터를 폐쇄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6일 부산 동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동구 수정2동 옛 청사 부지에 오는 2008년말까지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지난 6월말 기공식 후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던 중 최근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현장 인근 수정2동 놀이터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공사 현장관리사무소를 설치했다. 수정2동 놀이터가 폐쇄된 것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신청사 부지에 놀이터 용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 도시계획상 놀이터가 신청사 부지로 포함됐다"며 "신청사 공사가 완료되면 청사 내에 어린이놀이터와 녹지공간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놀이터 폐쇄로 그 불편은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동구청에 따르면 수정2동에 살고 있는 5~7세 아동은 100여명. 폐쇄된 놀이터는 80여평의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미끄럼틀과 그네,시소 등 5종의 놀이기구를 갖추고 있는데다 인근에 마땅한 놀이터가 없어 지역 어린이들이 마

음껏 뛰어놀던 유일한 공간이다.

수정2동 놀이터 인근 가장 가까운 놀이터는 수정3동 놀이터와 좌천동 놀이터로 2곳 모두 폐쇄된 수정2동 놀이터로부터 성인 걸음으로 20분이 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0여분 거리에 수정초등학교가 있지만 학교 놀이시설은 초등학생 발육상태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학전 아동들이 놀기에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종열·정선연기자



독일 맥주축제 독일 맥주축제인 '옥도버 페스트'가 25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찰리스 룸에서 열려 맥주축제장을 찾은 고객들이 독일식 소시지와 함께 맥주를 즐기고 있다. **이상일기자 silce@**

제 11회 금정예술제

27일부터 5일간 개최

부산 금정구청은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 동안 구청과 금정문화회관 등에서 '금빛샘 금어·금어의 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 11회 금정예술제'를 개최한다.

27일 개막식과 테마 무용공연 '금어의 소리를 찾아서...'에 이어 28일 구청 야외특설무대에서 열리는 뮤지컬 '바리데기'와 30일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되는 오페라 '코마청소부구출작전'이 특색있는 무대로 꼽힌다.

30일 청소년 어울마당의 하나로 열리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 청소년 문화축제'에서는 도자기 만들기,영화놀이 등 체험행사와 휠체어 댄스,합창,마인공연 등 공연행사가 마련된다. **최혜규기자**

부산대 '그린캠퍼스 계획' 반발

총학생회 "환경개선 찬성하지만 축구장 보존돼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공원화하는 부산대 그린캠퍼스 계획(본보 지난 15일자 8면 보도)으로 '넉넉한 터(운동장)'가 사라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총학생회와 학생지원처의 정례회의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대 그린캠퍼스 계획은 정문 오른쪽 효원문화회관 건립 계획과 연계해 넉넉한 터 2천500평을 포함한 정문 주변 1만여평을 녹지화하고 지하에 300여대를 수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이르면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과 학생회장과 동아리 회장,체육 동아리 회

장을 대상으로 넉넉한 터를 지키기 위한 선언 용지를 제출받고 26일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넉넉한 터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리플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총학생회와 학생지원처의 정례회의에서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대 그린캠퍼스 계획은 정문 오른쪽 효원문화회관 건립 계획과 연계해 넉넉한 터 2천500평을 포함한 정문 주변 1만여평을 녹지화하고 지하에 300여대를 수용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으로 이르면 연내에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최혜규기자 iwill@**

추석 및 대형마트 절도 기승

손님 복직이든 혼잡한 틈 이용 '슬쩍'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손님 복직이든 혼잡한 틈을 이용한 절도 사건이 빈발해 마트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6일 대형마트 화장품코너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완를 확인하던 틈을 화장품세트에 부착해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화장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부산 사상구 모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완를 확인스티커를 여성용 화장품세트 가격표 위에 부착하는 수법으로 화장품 세트 4개,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17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도 지난 24일 수영구 모 대형마트에서 쇼핑객이 카트에 놓아 둔 가방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송모(34·여)씨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에는 사상구의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 수습만원대 고가의 지갑에 1~2만원대의 저렴한 지갑 가격표를 바꿔 붙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고급지갑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2·여)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희경·김형기자 himang@**

영락공원 참배시간 연장

내달 1~8일 10시까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영락공원사 입단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락공원 참배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락공원은 또 연휴기간 동안 성묘객과 참배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야외 분향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지방용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자원봉사자가 지방을 대신 써주는 지방대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멀리 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참배객은 사이버 추모의 집(www.bfma.or.kr)에서 분향과 예를 올리고 사모의 글을 올릴 수도 있다. 문의 051-790-5111. **최혜규기자**

부산~서울 노선 이용

65세 이상 50% 할인

제주항공, 25일~내달 9일

제주항공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부산~서울 노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객에게 통상운임의 50%를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부산~서울 노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객은 주중 2만4천750원, 주말 2만8천550원의 운임으로 항공공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석 성수기 운임이 적용되는 10월 3~9일은 3만1천350원에 이용해야 한다. 문의 1599-1500. **김공희기자**

부산일보 제보 461-4444

부산·정정숙정덕관 506-8504
울산·임정민 052-272-4447
경남·권영준 055-266-5656

27년
27년
27년

▶법률·정문·부산·지방정보봉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시만 상담 가능

김해·양산

“5·31 지방선거

고소·고발 취하”

한나라 양산시당협 회견

그동안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경남 양산지역의 5·31 지방선거 후유증이 시민대화장으로 승화될지에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 양산시당원협의회는 26일 오전 11시30분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소속 시·도·원과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산발전과 시민대통합을 위한 입장'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 양산시당원협의회 이름으로 제기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양산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양수 지역구의원도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5·31 선거와 관련해 똑같은 지역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더불어 초당적 차원에서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혀 오근섭 시장과의 화해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한나라당 양산시당원협의회는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양산시민연합을 공식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한편 오근섭 양산시장과 양산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모(59)씨 등 18명에 대한 공식선거법 재판이 오는 29일 울산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태권기자 ktg680@**

김해 동부권에 대규모 문화타운

불암동 일원 서낙동강 주변 10만㎡

수변레저시설·가야해상문화촌 등 조성

내년 3~4월께 민자 공모 2010년 준공

김해시 동부권인 불암동 일원 서낙동강 주변에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대규모 문화타운이 조성된다.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동부권의 개발과 지역민들의 문화공간 확보 차원에서 서낙동강 일원에 수변레저와 생태교육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대규모 문화타운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문화타운의 기본계획을 보면 불암동 일원 10만㎡에 가야의 배와 전봉나루 등을 재현한 가야해상문화촌과 해상문화 관련 전시공간,전통 5일장의 풍물을 수용한 시장거리 조성 등을 통해 잊혀져 가는 축제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또 지역별,시대별 전통한옥촌 조

성으로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강변생태원과 보트계류장을 갖춘 스포츠와 휴양을 겸한 강변 휴양레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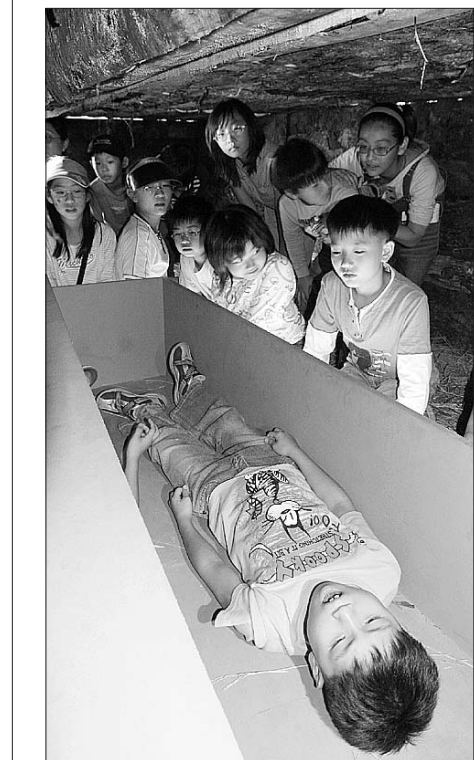
이 사업에는 모두 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주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액 민자로 유치한다.

이 사업은 올 연말까지 사전조사를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문화타운에 필

요한 세부적인 시설 등을 결정한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초 추정예산을 통해 용역 및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5억8천만원

을 확보해 놓고 있다. 따라서 시는 우선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을 감안, 지난 8월부터 조정가능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초까지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태백기자 jeong12@**



가야세계문화축전 체험존에 마련된 순장체험행사 어린이들이 관속에 누워 있다. **김진성기자**

“관속 들어가보니 기분 묘하네!”

■ '가야문화체험존' 인기 폭발

토기 직접 빚고 제련과정 시연

금관가야 무사옷 입기 장사진

특히 가야시대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대성동고분군에서 열리는 순장체험은 체험존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 모형으로 재현된 묘안에 직접 들어가면 나무 판이 덮이고 그 위로 흙이 뿌려지는 등 실제 무덤 들어가는 기분이다.

관객 김경희(37·여)씨는 "처음에는 재미있었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함께 관속에 들어갔는데 관이 닫히고 흙이 뿌러지니 무섭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며 체험담을 밝혔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체험행사는 가야유물 발굴체험과 금관가야의 무사복장을 직접 입어보는 것. 가야유물발굴체험에는 가야시대 출토된 유물을 찾으려는 아이들이 등장할 때마다 흙이 없으며,무사복장을 직접 입어보려면 최소 20분을 기다려야한다. 가야시대의 토기문양을 떠보는 '가야 탁본체험'도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는 인기 만점이다. **김진성기자 paper1@**



양산신도시 e-편한세상 1차 아파트 상가변영회가 고려개발 측에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가 앞 문체의 벤치. **천영철기자**

“상가 분양업체, 도로변 벤치 철거 약속 위반”

입주 상인, 막대한 손실 대책 호소

양산시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등 우려 수용 불가”

남부동 e-편한세상 1차

양산신도시에 자리한 한 아파트 상가 상인들이 분양업체가 상가 도로변의 벤치를 철거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양산시 남부동 e-편한세상 1차 아파트 상가변영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상가 분양업체인 고려개발이 10여개 점포가 있는 상가 앞에 설치한 벤치를 철거해주겠다고 약속해 지금까지를 치르고 입점했다는 것.

이 벤치는 상가 인근 신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남부고와 중앙중학교 후문을 거쳐 중공아파트 8단지쪽으로 개설된 도로변 양쪽에 길이 300m,높이 1.2m 규모로 설치돼 있다.

또 이 도로 일대가 학교에 인접,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6607구 규모의 e-편한세상 1차 아파트가 건립될 당시 고려개발이 준공허가 조건에 따라 설치,양산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 상인들은 “벤치를 반드시 철거해주겠다는 고려개발

측의 약속을 믿고 입주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벤치가 인근 아파트와 학교의 유동인구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상가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어 “벤치 양쪽 끝부분의 횡단보도 쪽으로만 벤치 출입이 가능 하다보니 점포에 각종 물건을 납품할 수 없고 해도 물건을 제대로 하역할 수 없는 등의 불편도 겪고 있다”며 “약속대로 벤치가 철거되지 않으면 변영회 차원에서 계약 해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산시는 현재 벤치를 철거할 경우 어린이 무단횡단 사고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상인들과 고려개발 측의 갈등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고려개발 관계자는 “올해 초 상인들이 벤치 철거를 요구했을 때 현장 직원이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계약해지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천영철기자 cy@**